

청년 일자리 교육 차별화 강진청년문화창작소 눈길

다양한 취·창업 교육 지원...취업률 향상 박차



강진군의 '강진청년문화창작소'가 차별화된 일자리 교육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6월 강진청년일자리카페와 함께 문을 연 강진청년문화창작소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창업 프로그램, 취업 교육 종합지원 등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들의 취업률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강진청년문화창작소와 연계한 강진청년일자리카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병영상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상담 및 탐색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난달 21일에 군이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병영상고에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지금 여기 나는 누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1단계 나의 강점 찾기, 2단계 진로와 나, 미래세계와 직업, 3단계는 특수분장과 공예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미래인재 핵심 역량인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 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었다.

5월 17일과 6월 19일 2차례에 걸쳐 강진예비군 및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카페 소개 및 취업과정 교육 프로그램 안내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취업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먼저 개강한 '브런치카페 취창업과정 1기'는 모집정원 12명을 훌쩍 뛰어 넘은 52명이 참가신청 하였다. '홀브루잉 마스터 취창업과정 1기' 역시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층들의 활발한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실질적 창업 예정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선정했다. '브런치카페 취창업과정 2기'도 참가신청서가 30명 이상 접수되었다. 수강생들은 지난 2일부터 취창업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청년취창업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취창업과정 교육 프로그램들이 예정돼 있다. 8월부터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숙박 과정', '3D프린터 활용 과정'이 개설될 예정으로, 7월 현재 참가신청서를 받고 있다. 9월부터는 '브런치카페 취창업과정 3기'가 개설한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들의 직업 탐색과 취업 교육은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강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 컨설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경로당 식품 위생 일제점검

영암군이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식품위생 일제점검에 나섰다.

군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양질의 식사 제공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위생적 환경 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 위생팀과 함께 452개소 경로당에 대해 식중독 예방 일제점검을 오는 8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은 6월말 현재, 439개소 중 412개소가 신청하였고 11개 읍면에서 경로당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식비 운영방법 및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재료 보관실 및 냉

장·냉동고 관리, 조리실 및 조리기구 위생 관리, 개인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등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함께, 예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개선은 물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제13회 황토골 무안 요리경연대회 성료

제23회 무안연꽃축제 기간 진행된 '제13회 황토골 무안 요리경연대회'가 27일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주무대에서, '황토골 무안 식도락 여행'이라는 주제로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속에도 뜨거운 관심 속에 경연을 마쳤다.

이번 요리경연 결과로는 망언면 이수미씨의 '낙지어복만두·낙지호통조미어포, 낙지물회소스'가 영예의 대상을, 경성북도 영덕군 최희다씨의 '연낙쌈(연근낙지보쌈), 연잎밥'과 전남 나주시 남예니씨의 '무안낙지·연어탕수육, 황금 밤호박에 빠진 흑당 밀크티'가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하고 우수상 4팀, 장려상 13팀까지 총 20팀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저마다의 개성으로 외식메뉴 1종, 간식메뉴 1종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유현수 셰프의 스타푸드쇼'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자 20팀의 현장 라이브 요리경연, 맛시식(냉면근차 & 고구마빠빼떡) 지원, '요리대회 역대 수상작 레시피 실용화



보급' 결과물에 대한 전시·시식회 운영, 올해 총품작 시식, 작년도 대상 모델물회 나눔행사, 관객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되어 곳곳에 달콤한 향연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증액

목포시는 오는 8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1만원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만3-5세아동)는 매년 전남도에서 정한 수납한도범위 내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외에 1인당 월 6만 5천원부터 최대 8만 4천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동안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아동 1인당 월 2만원(도비 30%, 시비70%)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해 목포시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더 완화하고자 시비 1억 9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오는 8월부터 기존 2만원에 1만원을 추가하여 학부모부담금의 35%에서 46%인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2,700여명이 차액보육료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액보육료 1만원 증액 지원은 정부의 무상보육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목포=김광수 기자

진도군, 수요상설공연 '진수성찬' 오늘부터 공연

진도군이 3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상설공연인 '진수성찬'을 화려하게 시작한다.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열리는 수요상설공연 '진수성찬'은 풀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과 여름 휴가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전통 문화 예술의 성찬을 공연한다.

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 보유를 보유하고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로서 휴가철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31일 개막공연은 무형문화재 보존회의 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등 상징례 공연을 1시간 동안 실시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은 춤과 노래로 신에게 비는 무속의식으로 죽은 이의 멧힌 원한이나 아쉬움 등의 모든 것을 씻어주어 편안하게 다음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이다.

특히 이날 진도씻김굿 공연에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최종 우승자인 가수 송가인 씨의 어머니 송순 단 전수조교가 출연한다.

또 사물 반주에 맞춰 노래와 춤,

재담으로 상주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된 진도다시래기도 함께 선보인다.

관람료는 1만원으로 지역주민과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진도 숙박객, 문화리레이(재관람) 등은 30%에서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군 문화예술체육과 예술진흥담당 관계자는 “처음 실시되는 수요상설공연 '진수성찬'이 토요일숙여행과 함께 진도군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민속 예술 공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 완도를 위한 첫걸음'

초·중·고 학부모 함께 하는 정담회

완도군은 지난 26일, 행복한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실현하고자 초·중·고 학부모 60여 명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여건이 달라 확실적인 행정추진으로는 주민 요구를 다 파악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운 점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양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등·하교에 필요한 버스 지원책 마련,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확보, 어린이와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센터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시일을 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불편 해소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